

화면해설 방송과 배리어프리 영화의 이해를 돕는 연출방법 연구

나준기(동명대학교)

차 례

1. 서론
2. 국내외 화면해설 방송의 제작 환경
3. 효과적인 이해를 돕는 연출 방법
4. 결론

1. 서론

1.1 화면해설 방송이란?

소리와 내레이션, 자막과 수화에 의존하여 TV를 시청하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소리로 화면을 보여주는 방송’이다. 영상콘텐츠의 스토리의 전달이 아닌 화면자체의 이해를 위해 장면의 해설과 편집연출효과의 장면의 전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특징 및 제스처어나 몸짓 등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을 해설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한류문화의 확산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는 화면해설방송은 타문화권이나 장애가 없는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1.2 화면해설 방송이 실시되는 배경

UN이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한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1990년대 법제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사회적인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장애인 정책 확대발전과 복지가 접목되어 미디어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적 시도가 많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한다고 밝히고, 지난 1년 여간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2013년까지(화면해설은 2014년) 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로 그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EBS(한국교육방송)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 수화서비스를 하기 시작 하여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직업교육, 평생교육으로 나뉘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두 가지 형태인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으로 제작되는데 자막방송은 초, 중, 고, 직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수화방송은 평생교육과 스크린 리더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 국내외 화면해설 방송의 제작환경

2.1 국내 제작환경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연말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화면해설 방송물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KBS의 경우 자체테이프 외부반출금지 조항이 있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화면해설방송작가와 성우를

KBS에 지원하지만 제작은 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센터에서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작비의 65%를 KBS가 KBS미디어센터에 주고 있어 복지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성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화면해설 방송제작이 자회사 특혜가 아닌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통해 제작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의 화면해설은 2006년부터 작가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플랫폼으로 해 지역의 맹아학교와 방송제작 인력들이 합쳐져 만들어 가고 있다. 2007년부터 장애인 미디어축제를 통하여 화면해설영화를 상영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자체 제작한 2편을 상영하였고 2009년에는 워낭소리를 제작하면서 처음으로 대사 더빙을 시도 하였다.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5편을 화면해설로 제작 상영하였다. 2011년에는 19편을 제작하면서 외국 영화를 화면해설로 제작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전용 영화로 한국영화 7편과 해외영화 11편이 제작되었다. 총 70명 이 참여하여 15일 동안 완성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화면해설 작가 양성교육은 해마다 계속되어 기초반과 심화반 으로 나누어 진행하다가 교육 대신 워크샵 형태로 대체되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동명대학교 방송영상학과에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진행되며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장기 인턴쉽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산국제 영화제 출품작중 화면해설 작품으로 선정되면 작가, 성우, 기술팀 중에 속해서 믹싱과 편집 작업을 하게 된다.

2.2 유럽과 미국, 일본의 화면해설 방송의 제작환경

유럽과 프랑스 사회의 경우, 디지털 정보 사회와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 고립화, 독신 생활인구의 증가로 사회 발전의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사회의 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프랑스는 T-Seniority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들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디지털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TV을 기반으로 하고, ‘중점 기술(technologie de

pointe)’을 이용하면서, TV 수상기를 통해 노인들에게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주문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는 매우 대표적이다. 정부 뿐 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 또한 다양하게 전개된다. 예를 들어, 영국 BBC는 ‘다양성위원회 (Senior Diversity Commission)’ 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방송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이나 장애인, 소수인종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1996년 방송법 20조 1항에 ITC는 디지털 프로그램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프로그램 이해를 돕는 지침서를 작성해 수행현황을 평가하며 동법 20조3항에 화면해설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분량, 잠정적 대상 관객과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디지털 공중파TV의 자막 수화, 화면해설에 대한 ITC의 규정에 명시되었다.

미국 정부는 1993년 9월에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genda for Action’를 발표해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을 확장하여 국민들의 정보요구에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대응하며, 국민이 정보와 통신의 ‘가진 자’(haves)와 ‘못가진 자’ (have-nots)로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 영역은 주로 ‘소득’, ‘장애’, ‘지역’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이라는 정책기조는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를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장애인들이 그 수에 있어 정부와 산업의 거대한 소비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 입각하여 물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형편의 차이에 의해 정보접근권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복지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에 부음성을 사용하여 상황설명 내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런 해설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은 NHK의 ‘텔레비전 소설’ ‘대하드라마’ ‘오늘의 건강’ 이며 민간방송사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묘사한다.

그 외 이주민과 다문화계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은 고용기회에 있어서 다문화적 특성들을 반영해야 한다. 미디어가 이주자나 소수 인종을 고용하고 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며,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주자와 소수 인종들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다문화주의 이론가들과 교육자들은 미국이 보다 민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문화를 인종과 민족, 젠더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두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의 문화와 언어, 지식과 태도, 세계관을 경험하고 이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배리어프리 영화제 제작환경

배리어프리영화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전문영화인들이 2011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를 만들어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협의체로 활동하며 공감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능기부와 영화감독들의 적극참여로 제작되고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국내에 개봉되었던 영화와 동양 문화권에서 제작되어 이해하기 쉬운 영화를 선택하여 소리로 들려주는 영화를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관람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영화장르에 시도하고 있으며 배리어프리 영화연구회와 포럼을 통하여 보다 좋은 환경의 콘텐츠를 위한 모색과 찾아가는 시네마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적극 찾아나서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영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은 우리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달팽이의 별-Planet of Snail>(그림1) 멜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내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연인의 서로를 불편을 보완하며 관객이 오히려 익숙했던 작은 일이 공감이라는 체험과 다른 삶에 인식하게 되는 영화이다. 한국영화 최초로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동시 개봉되었고 제24회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IDFA)장편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LA아시아태평양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되었다.

또 다른 형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한 작품을 선정하여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화면해설을 위한 더빙

및 자막을 추가하여 제작된 영화 콘텐츠는 타 문화권 관람객과 장애인을 위해 이어폰을 통해 화면해설 수신기를 통해서 각국의 언어와 한국어로 구성된 화면해설 영화장면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국내 영화 <거북이 달린다> (그림2)가 영화제 기간 상영되었다.



▶▶ 그림 1. 2012년 이승준 감독작 ▶▶ 그림 2. 2009년 이영우 감독작

3. 효과적인 이해를 돕는 연출방법

우선 해설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속보나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을 우선적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빠르게 전개되는 프로그램은 대사나 자막과 나레이션이 빠빠하게 채워져야 하기에 해설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대사보다 액션이 많은 영화에서는 지속적인 화면해설이 필요한데 내용흐름과 다른 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대사와 대사의 간격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화면해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해설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봐야하고 처음에는 영상 보다는 대사나 음향효과를 들으면서 해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simpspecs"(그림3)를 통해 시각장애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특수렌즈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 그림 3. 저시력 안경을 착용하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등장인물이 많을 경우 이름과 인물들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편집효과에 의한 순차적 편집이 아닌 경우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 또는 장면전환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작가의 경험과 나레이션 속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해설원고에서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대한의 힌트를 통하여 흐름을 이해 하게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설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입시키면 원작의 의도와 달라질 수 있으며 원래의 나레이션과 겹쳐지지 않도록 동작 해설을 동시에 필요할 경우 배경음이나 효과음으로 현장감을 주어 지나간 화면을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로 제작사의 원래 시나리오와 타임코드가 들어간 DVD를 통하여 해설초고를 작성한다. 네 번째로 원 제작자나 감독, PD에게 해설원고의 승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타임코드가 들어간 DVD를 통하여 해설 속도를 조절하는 리허설이 필요하며 프롬프터등 장비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화면 해설 음을 잘 드러나도록 BGM의 음향레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후반작업에서 오토 베지에(Auto Bezier)를 사용하여 배경음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해설 음이 일정 음량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목소리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장면해설이 전달되도록 하고 긴박할 때는 긴박감을 줘야한다. 코믹부분에서 살짝 기분 좋은 미소가 느껴지도록 한다. 해설을 궁극적으로 동작을 설명하고 이야기의 흐름과 풍경과 행동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 사투리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야 할 경우 너무 사투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외화인 경우도 지방색을 나타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조금의 설명으로 특성만 이해시키면 원작에 방해를 주지는 않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설 음의 높낮이 차이로 인식이 어려워지거나 빠진 부분을 확인하여 검수 하는 과정이다.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녹음하여 사운드 편집을 통하여 살려낸다. 원작보다 리허설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내심과 집중력을 요한다. 특히나 문법적 요인인 시제의 사용은 최대한 화면움직임에 근거하여 현재시제를 써야만 한다. 한국의 문법에 없는 근접미래 과거의 표현이 화면전환을 통하여 복선 연출이 나오게 되면 사회적 의미와 단어자체의 의미 중 사회적 혹은 영화내용에 부합된 의미로 쓰여 지고 표현 되어야 한다. 지시대명사와 정관사의 혼용으로 인한 표현에 주의 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곳,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의 표현이

한 문장에서 혼용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영화나 영상물이 시작할 때 로고와 오프닝타이틀 엔딩크레딧 등 CG 효과에 의하여 빠르게 지나가는 오프닝 타이틀은 해설할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대안은 프로그램 정보를 시청자나 관객에게 미리 온라인 가이드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쓴다. 제작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오프닝로고를 해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제작자와 감독의 이해와 일반적으로 한국영화인 경우와 외국영화인 경우로 연출방법이 나뉘는데 한국영화는 음성해설 녹음과 한국어 해설자막 과 사운드 믹싱으로 연출하게 된다. 외국영화인 경우는 한국어 더빙에 음성해설녹음과 한국어 해설자막과 사운드 믹싱으로 연출된다.

마지막으로 무성영화시대의 변사처럼 '라이브 가이드'를 통하여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해설하는 것으로 비장애인 에게도 영화의 이해와 각별한 재미를 라이브를 통하여 전달되어 한층 도움이 되고 영화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4. 결론

정감 있는 작가의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화면해설의 첫번째 원칙이다. 그러나 전달하는 내레이션의 일정한 톤과 적극적인 표현의 지로 인하여 방송이나 영화의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에게 인식되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제작하는 입장에서 연출방법에 대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게 되고 스마트환경과 함께 미리 정보를 전달하여 빠르게 내레이션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드라마나 빠르게 전개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에 한정되었다면 폭넓은 장르의 화면을 전달해주는 역할에는 배려와 나눔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1] 2012 배리어프리 영화포럼 한일 국제포럼- (사)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 [2] 2012배리어프리 영화포럼 영국과 일본의 화면해설 지침 자료집-(사)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 [3] 디지털융합시대 방송 소외계층 수요(Needs) 대응정책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회 자료 2009년 11월
- [4]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5]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www.ebs.co.kr

저자소개

● 나 준 기(Jun-Ki Na)

정회원



- 1995년 7월 : 프랑스 니스국립미술대학교
- 1998년 7월 : 프랑스 발렌시엔느대학교(예술 학사)
- 2000년 2월 : 프랑스 발렌시엔느대학교(예술 석사)
- 2003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방송영상 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상제작, 특수효과, IT, 문화 콘텐츠